

실기·실습 대면수업 긴급 '연기'... 1학기 온라인 강의 확산

이태원궤 소크에 대학가 비상대응

이태원 클럽 확진자 주로 2030 대면강의 예정 대학 일정 취소 학생들도 '비대면 수업' 요구

이태원 클럽에서 촉발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되자 초·중·고교 등교 개학 일정이 연기된 데 이어 대면 수업을 재개하려던 대학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20대 등 젊은 층에 집중돼 있어 대학가에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들은 당초 11일로 예정됐던 등교 수업을 급히 연기했고, 학생들도 '비대면 수업'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클럽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등 영향으로 11일 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전날 대비 27명 늘었다. 이 중 22명이 국내 발생 사례로,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은 확진자가 방문하지 않은 클럽에서도 감염 사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12일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선별진료 받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례가 나오는 등 그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는 누적확진자 93명 중 20대가 58명, 30대는 18명으로 가장 많다.

이태원 클럽에 들른 연령대가 대부분 2030에 집중되면서 대학가는 긴장 상태다. 대부분 대학이 1학기 수업을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실기·실습 일부 강의는 대면 강의로 전환하거나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지난달 조사 기준으로, 전체 193개 대학 중 이달

11일 기준 실기·실습 등의 일부 수업만 대면 수업을 계획했던 대학은 94개교로 48.5%에 달한다.

대학들은 이 같은 계획을 선회하고 나섰다. 사총협 집계를 보면, 이달 7일 기준으로 11일 대면 수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던 대학 21곳 가운데 12곳이 대면 수업 일정을 뒤로 미뤘다. 반면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겠다는 대학은 62곳에서 71곳으로 늘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4월 말 기준 38개 대학이 11일부터 대면 강의

를 시작하려 했지만,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9개 학교가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5월 초 서울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라면서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예정된 모든 대면 수업을 잠정 연기, 취소한다"고 밝혔다. 광운대는 비대면 강의 일정을 기존 5월 11일에서 2주 연기한 5월 25일로 연기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긴급회의를 거쳐 결정했다.

인천대와 부천대도 11일 예정이었던 대면 수업을 취소하고 전면 온라인 강의를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원래 일부 과목은 오늘부터 대면 수업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달 15일까지 예외 없이 모든 강의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실기·실습·실기가 포함된 교과목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라대는 지난 6일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했으나,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여파를 우려해 나흘 만에 중

단했다.

학생들도 솔렁이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나 대학 '대나무 숲'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찬반 글을 올리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고려대는 이태원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가 교내 음식점을 방문해 8일 소독이 진행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출석 수업을 해도 되냐'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외대는 총학생회가 나서 '모든 수업의 비대면 수업 의무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방역 당국도 대학의 대면 수업에 대해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재차 언급한 만큼 대학들도 일정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대학 판단에 따라 부득이하게 대면 수업을 할 경우 마스크 착용, 강의실 내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교육부의 초·중·고교 등교수업 연기도 대학의 수업 방식 변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한신대, 15일 이사장 이취임식·개교 80주년 기념예식

80년 넘어 100년까지... 제2의 창학비전 마련

코로나 확산 방지위해 방역조치 만전 30대 이사장 박상규 목사 취임패 수여

한신대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경기 캠퍼스 살롬채플에서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장 이·취임식 및 개교 80주년 기념예식'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참석자를 제한하고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한신대 개교 80주년 기념예배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장 이·취임식 ▲제26회 한신상 시상식 ▲개교 80주년 기념행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김재성 교목실장의 인도로 진행될 기념예배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인 육순종 목사가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예정이다.

이어 학교법인 한신학원 제29대 이사장인 김일원 목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하



한신대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경기 캠퍼스 살롬채플에서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장 이·취임식 및 개교 80주년 기념예식'을 진행한다. /한신대

고 제30대 이사장인 박상규 목사에게 취임 선인 후 취임패가 수여된다. 광주 성광교회 담임 목사인 박 목사는 지난 2월에 제30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제26회 한신상을 나선정 장로, 신익호 목사, 박찬섭 목사에게 수여한다. 한신상심사위원회(위원장 주용태 이사)는 지난 3월 한신대 발전과 우리 사회 민주화 운동은 물론 사회봉사, 해외선교, 여성운동 등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해 위 3명에게 만장일치로 한신

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외빈의 참석을 제한된 가운데 김상근 KBS 이사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광상욱 오산시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재난 안전대책위원장(전 국무총리) 이낙연, 오산시 국회의원 안민석,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회장, 배우 문성근 등 평소 한신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주요 인사와 해외협정대학에서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제작해 전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최초 100세 신학자인 이장식 한신대 명예 교수의 개교 80주년 기념 특별 메시지도 준비 중이다.

개교 80주년을 맞이해 '80장의 사진으로 본 한신 80년'의 영상 보기 후 연구홍 총장이 '민족·민주 한신', '통일·평화 한신' 키워드로 개교 80주년을 넘어 100년을 향한 제2의 창학을 위한 비전을 선포한다. 대학발전을 위한 기금 전달식도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차정인 부산대 신임 총장 임기 시작

"학사관리 최선, 대학 조직개편 임할 것"

6월 중 취임식 개최여부 결정

부산대는 법학전문대학원 차정인 교수(59)가 제21대 총장으로 임명돼 4년 임기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취임식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추이 등을 감안해 6월 중 개최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차정인 신임 총장은 부산대 법학과 79학번으로 1989~2006년까지 검사와 변호사를 거쳐, 2006년부터 부산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해 왔다. 교수회 부회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차 신임 총장은 '오늘 업무를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 서한으로 첫 인사와 대학 운영의 각오를 전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차 총장은 서한에서 "1946년 건학부터 이어온 자랑스러



차정인 부산대 신임 총장

운 역사를 생각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맡겨진 중책을 수행하겠다"며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당장 1학기부터 성과있는 한 학기가 되도록 수업지원과 학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조직개편과 대외활동에 본격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

경희사이버대, K-BPI 5년 연속 1위

〈한국산업 브랜드 파워〉

사이버대학 부문 1위 인증식 진행

경희사이버대는 지난 7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사이버대학 부문 5년 연속 1위 인증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증식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의 K-BPI 소개를 시작으로 조사결과 브리핑 ▲인증패 전달 ▲축사 및 선정 소감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경희사이버대의 변창구 총장, 엄규숙 부총장, 신봉섭 교무처장, 백은영 글로벌·대외협력처장, 안성식 입학·학생처장, 이주민 미디어

개발처장, 방성원 대학원장이 참석했다.

인증식은 지난 3월 31일 발표된 '제22차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에서 경희사이버대가 사이버대학 부문 5년 연속 1위에 선정 조사결과 공유와 추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조사에서 경희사이버대는 타 사이버대학에 비해 충성도 전반에서 우위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접근성, 편리성과 관련된 이용가능성 차원 부문이 높게 나타나 사이버대학 부문 1위로 선정됐다. /이현진 기자

신기술분야 융합디자인 교육생 모집

한국산업기술대

선발학생 등록금·연구비 등 지원

한국산업기술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신기술분야 융합디자인 전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돼 교육생 모집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과 기업 간 공유형 학습 및 교육 협력을 기반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신산업분야에 특화된 석·박사급 우수 디자인 전문인력을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주관 하에 산기대, 성신여대, UNIST, 서울여대, 한서대가 컨소시엄 형태로 수행하게 된다.

산기대는 5년간 16억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디자인공학과와 대학원 미디어융합디자인공학과에서 바이오 피드

백 기반 체험형 AR/VR 미디어 디자인 분야의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사업의 첫 행보로 미디어융합디자인 공학 대학원생을 이달 1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모집한다. 선발 학생은 ▲등록금 50% 지원 ▲연구지원비 월 70만원 지원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해외 디자인공모전 참가비 지원 ▲졸업논문 및 시제품 제작비 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교육과정 참여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이현진 기자